

중구, 동절기 한파 대비 노숙인 쪽방 주민 '안전 확인' 나서

중구(구청장 김정환)는 겨울철 강력한 한파에 대비해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등 '현장 중심의 선제적 복지행정'에 나섰다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구는 지난 6~7일 이틀간 관내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과 동인천동·개항동 일대 쪽방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동절기 한파 대비 합동 현장점검'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에는 중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인천쪽방상담소', '내일을여는집'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었다.

점검반은 지하철역 주변과 지하도 등을 순찰하며 노숙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쪽방 거주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안부를 확인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김정현 중구청장이 점검반과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꼼꼼히 살폈다. 무엇보다 저체온증 등 한랭 질환 유무를 점검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데 주력했다.

김정현 구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 점검과 수시 순찰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모든 구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도록, 더욱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 그물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웅진군, 어선어업인 지원사업

웅진군(군수 문경복)은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상 조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어선어업인 지원사업(노후어선 기관·장비개량,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어선의 기관, 장비 지원 및 연근해 어선의 전기·구명·소방·통신 등 필수 설비 지원을 통해 해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2억 2,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웅진군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기관(엔진) ▲구명조끼 ▲레이더 ▲어군탐지기 ▲무전기 등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안전·조업 장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상 기상이 급변하고 어선사고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어업인의 안전의식 강화와 함께 노후화된 선박 안전장비의 교체 및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업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업인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웅진군청 수산과(032-899-2721~5)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지원 조건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웅진군은 앞으로도 해상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연세대학교 총장, '양자·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대한민국 대표 '양자·바이오·메디컬 혁신 클러스터' 조성 협력 방안 논의

송도세브란스병원 조속 건립, 글로벌 양자·바이오 기업 유치 등 협력에 한몫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가 '양자·바이오·메디컬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첫걸음을 내딛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윤동섭 연세대 총장과의 면담을 갖고,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바이오·메디컬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양자 알고리즘·응용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송도세브란스병원을 중심으로 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실질적인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와 연세대는 ▲혁신적인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및 바이오 데이터 프로세싱의 획기적인 개선 ▲산학연 협력 기반 강화 ▲바이오산업화의 핵심거점인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조속한 건립 ▲글로벌 양자·바이오 기

업 유치 ▲양자 클러스터 등 국가 양자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유치 협업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800병상 규모의 미래형 첨단병원인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조속한 개원에 뜻을 같이 했다.

이에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을 위해 필요한 추가 건축비를 기존에 합의한 연세대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주)의 투입비용과 투입비율을 기반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유 시장과 윤 총장은 면담 후 양자 컴퓨팅센터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현장을 방문해, 향후 협력 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시와 연세대의 협력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차세대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양자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연구·산업·인재가 집적된 양자 기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하린 기자

인천·서울·경기 교육감, 과소학교 관리 대책 교육협력 방안 논의

수도권 지역 과소학교 관리 대책,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사항 논의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일 경기도교육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지역 과소학교 관리 대책,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지속적인 증가 및 지역 간 교

육 불균형 문제에 공감하며,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사회 공유학교, 주교복합형 학교 등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모델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내실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2015

년에 마련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현행 여건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2(교육자료) 신설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실무협의회를 거쳐 학교 현장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수도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경기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남동구, '대한민국 새단장' 우수 지자체 선정

남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새단장'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8일 전했다.

지난해 실시된 '대한민국 새단장'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 생활공간을 개선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 등 모두가 함께하는 전국 단위의 환경정비 운동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 참여도, 환경정화 활동 추진 성과, 홍보·교육 실적, 정책 협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남동구는 소래포구 일원과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원도심의 골목길 등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한 환경정비 및 홍보 활동 등이 높이 평가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대한민국 새단장' 운영으로 클린 남동을 위한 구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도심 환경 조성으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남동구를 새롭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구, 검단구 출범준비단 사무실 개소식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7일 서구 완정로10번길 14(舊 마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검단구 출범준비단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하고 검단구 출범준비단의 본격적인 업무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서구청장을 비롯해 서구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 주민 80여 명이 참석해 검단

구 출범을 향한 첫걸음을 함께 축하했다.

'검단구 출범준비단'은 지난 1월 2일 조직개편을 통해 3구 10과로 확대 개편 되었으며, 검단기획행정국, 검단안전환경도시국은 마전동 청사에서 검단경제보건국은 검단행정과 건물에서 검단구 청사가 마련되기 전까지 검단구 출범을 위한 행정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무실 개소를 계기로 출범준비단이 안정적으로 안착해 검단구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주민과 소통하며 치질 없는 검단구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뭇자리용 인공 상토·육묘상자·개량물꼬 한번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촌 일손 부족에 따른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오는 1월 30일(금)까지 '2026년도 뭇자리용 인공상토, 이앙기 육묘상자, 개량물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약 16억 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해 농가제 구입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원 비율은 사업별 기준단가 대비 ▲뭇자리용 인공상토 80% ▲개량물꼬 80% ▲이앙기 육묘상자 60%다.

특히, 올해는 벼 재배 농가의 편의를 위해 사업별로 달랐던 신청 기간을 하나로 통합하여 '동시 접수 기간(원스톱)'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개별 사업 신청을 위해 읍·면사무소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영농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청 자격 및 접수처는 사업별로 차이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뭇자리용 인공상토'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강화군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

업(법)인이 대상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1ha당 200 기준 65포(400 기준 32포)까지다.

'이앙기 육묘상자'와 '개량물꼬'는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육묘상자는 1ha당 300개, 개량물꼬는 1필지당 1조씩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접수 마감 후 기본형공익직불제, 농지대장,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가별 공급량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인 3월 중으로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영농자재 지원사업이 고품질 강화쌀의 생산 기반을 다지고, 경영비 절감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청 시기 통합 운영과 같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